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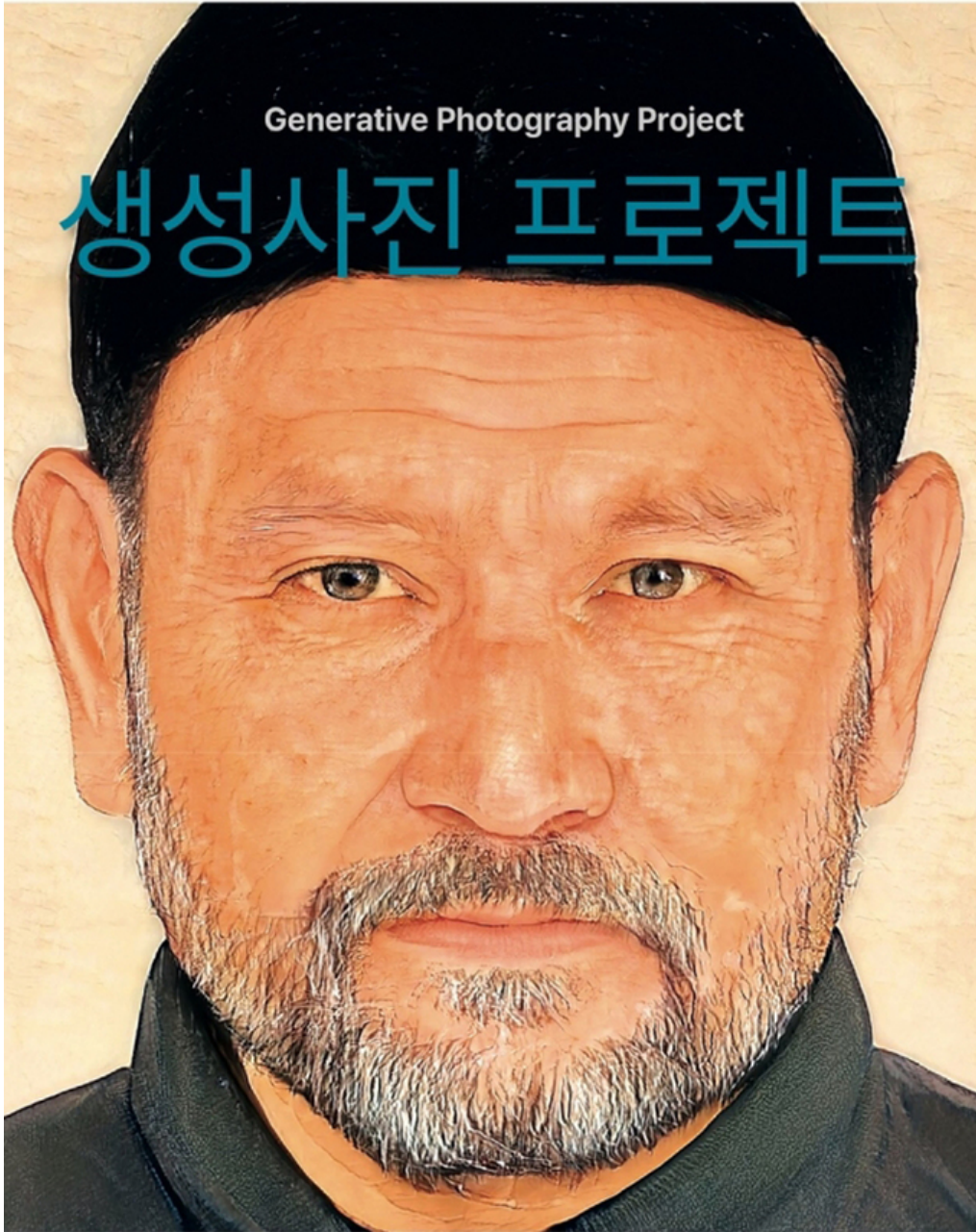
세계일보

온라인 인공지능이 만드는 초상사진전 '생성사진 프로젝트'

입력 2024-01-22 12:08:12, 수정 2024-01-22 13:04:43

박평중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연구교수가 다음달 8일까지 서울시 중구 복합문화공간 마프에서 인공지능(AI)이 만드는 초상사진전을 연다.

이번 전시회에는 태조 이성계, 영조, 철종, 윤두서(조선 후기 화가), 논개, 갈릴레이, 아그리파, 마리앙투아네트 등 과거 인물들의 초상화로부터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실적인 사진 이미지를 구현한 총 200여점의 작품을 공개한다.



전시기간 | 2024년 1월 19일~2월 8일 (수목금 13:00~18:00) 전시기획 | 박평중(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* 연구교수)
 전시장소 | 마프(MAF, 서울시 중구 서애로 33 티엔에스빌딩 5층) 오프닝 | 2024년 1월 19일 (16:00)

주최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| 후원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| 협찬  MAF

'생성사진 프로젝트'는 인공지능이 초상화를 사진이미지로 합성해 과거 인물의 사실적 시각적 경험과 효과를 제공한다.

박평중 교수는 "순수 자동 생성 단계에서 생성 인공지능은 단 하나의 이미지만 산출하는 기계의 의도를 통제하지 못하면 개별 인간의 특징은 사라지고 스테레오타입으로 변환될 것"이라며 "이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"고 설명했다.

또 "우리가 AI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, 또 다른 한편에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. 이번 '생성사진 프로젝트'는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덧붙였다.